

아메리카 정복 시대 통역사: 신대륙 발견에서 아스텍 제국 정복까지

박 소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소영(2014), 아메리카 정복 시대 통역사—신대륙 발견에서 아스텍 제국 정복까지.

초 록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아메리카 대륙의 정복 과정에서 두 세계를 언어적으로 매개하는 통역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베로아메리카 역사 연구에서 통역사들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있다하더라도 이 시기 통역사들은 “배신의 상징으로 이들을 소비하는 대중문화로 인해 역사에서 대중의 상상 속 인물이 되어 버렸다”(Ríos 2005, 47).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 말린체(la Malinche)라는 이름의 원주민 여성으로, 그간 그녀는 민족의 배신자이자 정복자가 유린한 ‘칭가다(la Chingada)’였다(Paz 1950, 31). 최근 많은 연구들이 이 인물을 정복자 코르테스의 “동료이자, 조언자, 비밀 요원,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Bastin 2003, 487)로 재평가하고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그녀는 두 문명의 만남을 증개한 그 시대 통역사 중 한 명이었다. 본 연구는 신대륙 발견과 아스텍 제국 정복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들 통역사들에 대해 역사 기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들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두 문화의 만남에서 활약한 통역사, 문화 중재자, 안내인, 정보제공자, 외교관이었다.

핵심어 신대륙 발견, 아스텍 제국 정복, 통역사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신대륙 발견¹⁾에서부터 식민지 건설에 이르기까지에 해당하는 시기 동안 아메리카 대륙에서 활동한 통역사들에 관한 연작 논문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연구 범위는 통역사의 언어와 인종, 문화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삼아 신대륙 탐험기와 아스텍 제국 정복기로 제한하도록 한다. 연구 목표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통역사들의 흔적을 복원하고 그 역할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출발은 “최근 1000년 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여겨지는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의 만남”(송영복 2000, 5)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라는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교류라고는 전혀 없었던 두 세계가 조우하는 역사의 현장에는 두 언어에 능통한 가교 역할을 하는 통역사가 반드시 존재한다(Roland 1999, 7). 바르톨로메 델 라스 까사스(Bartolomé de las Casas) 신부가 1542년 집필한 보고서에서 출몰라(Cholula) 학살 당시 불에 타 죽어가는 출몰라인들이 “이런 나쁜 놈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무얼 잘못했던 말이나? 왜 우리를 죽이는 것이냐? 가라, 멕시코로 가면, 우리의 왕 목떼수마가 너희에게 우리의 복수를 해주리라”(Saint-Lu 1992, 108)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 절규는 역사적 사실일까 아니면 허구일까?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뒤 한 참 후에 집필된 본 보고서 내용이 역사적 사실인지 작가의 상상력의 결과물인지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으나, 만일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면 원주민의 말을 스페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통역사가 존재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역사의 역할은 비단 언어 중재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이 시대 통역사들의 중요성을 “그 몸무게에 상응하는 황금의 가치

1) 박종욱(1999)은 신대륙 발견을 바라보는 시각을 셋으로 나누어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은 ‘발견’, ‘정복’, ‘개발’, ‘근대화론’ 등의 어휘로, 원주민적 시각은 ‘착취’와 ‘수탈’이라는 어휘로, 절충적 시각은 ‘만남’과 같은 가치중립적 어휘로 설명한다. 따라서 ‘신대륙 발견’이라는 용어는 극히 유럽적인 시각에서 나온 말(송영복 1999, 33)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연구에서 다루는 시대, 지역, 인종, 언어 등이 매우 다양한 관계로 가장 ‘관행’적이나 포괄적인 용어인 ‘신대륙 발견’을 사용하도록 한다.

(Un buen intérprete valía su peso en oro)”(Hugh 1994, 197)로 묘사할 정도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정복 과정 통역사의 역할은 핵심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통역사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는 아니다. 통역은 구어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번역처럼 오래도록 문자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간혹 역사에 통역사나 그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하더라도 부차적인 것이었다. 역사가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등장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을 기록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 옆에 선 통역사까지 기록할 심리적, 윤리적, 물리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역과 통역사에 대한 기록이 역사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통역의 특성상 통역사가 자신이 통역한 내용을 기록에 남기기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에, 통역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기록하는 제 3자의 이데올로기가 투영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두 문화의 중간에 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족의 배신자라는 낙인찍혀 역사적 실재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퇴색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말린체(Malinche)이다. “언어는 제국의 동반자(La lengua fue siempre la compañera del imperio)”(Quilis 1989, 109)라는 안토니오 데 네브리하(Antonio de Nebrija)의 수사를 빌자면, 말린체는 아스텍 제국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의 ‘혀(lengua)’로서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제국화 과정을 함께한 ‘동반자’였다. 그러나 코르테스와 말린체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남성과 여성, 유럽인과 원주민, 문명과 야만, 기독교와 이교도인, 정복자와 피지배자라는 제국주의의 이항대립 이데올로기의 전형으로 기능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 민족의 배신자, 혼혈민족의 어머니와 같이 다분히 부정적으로 은유화 된 말린체라는 인물과 그의 행적이 아메리카 정복 시기에 활동한 통역사의 전부인양 매도되었다. 나아가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최초의 메스티소’의 어머니(김윤경 2010, 58)가 되었으며, 정복자와의 사이에 혼혈아들을 두었다는 사실로 인해, 멕시코 독립 시기 말린체는 ‘번역(traducción)/반역(traición)’의 패러다임이

되어 버렸다(조구호 2008, 340). 말린체라는 역사적 실재는 무조건적인 외국 동경을 비꼬는 말인 말린치스모(Malinchismo) 속에 용해되어 사라졌다. 이러한 말린체에 대한 부정적 신화(Paz 1950)는 현대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재평가(조구호 2008; 김윤경 2010; 강성식 2012; Valdeón 2013)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녀뿐만 아니라 이 시기 활약한 여타 통역사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 기술의 관점에서 1492년부터 시작된 신대륙 탐험과 1521년 완료된 아스텍 제국 정복 과정에서 연대기에 존재하는 통역사들을 존재를 규명하고, 이들의 통역 활동 및 통역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역사의 흔적을 복원하여 정복 과정에서 이들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역사 속에 “부재하나 늘 현존하는”(김윤경 2010, 58) 통역사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II. 탐험기 통역사

신대륙 탐험 시기 통역사들은 탐험가들의 의사소통 필요에 의해 생포된 원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통역사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노예였다. 통역에서 사용된 언어는 스페인어와 100여개의 원주민 언어였으나 이들의 언어 수준을 고려해볼 때, 언어적인 통역보다도 비언어적인 통역, 즉 수화 통역이 실생활에 걸쳐 널리 사용되었을 것을 짐작된다. 탐험가들은 여러 차례 탐험을 진행하면서 그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통역사 양성을 목적으로 원주민들을 본국으로 데려가 교육시키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통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해냈다. 원주민 통역사들은 점점 탐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언어 중재자에 그치지 않고 보다 다양한 통역 역할을 경험하면서 두 문명의 중간자로 기능하게 된다.

1. 크리스토폴 콜론(Cristóbal Colón)의 통역사

1) 스페인 출신 통역사

1492년 콜론의 1차 항해에 동행한 통역사는 2명이었다. 로드리고 데 헤레

스(Rodrigo de Xerez)와 루이스 데 토레스(Luis de Torres)가 바로 꼴론의 첫 공식 통역사였다. 전자는 기니(Guinea) 지역에서 경험이 있는 자였고, 후자는 무르시아(Murcia) 아델란타도(adelantado)의 아랍어 서한문 번역 겸 통역을 담당하던 유대인으로,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 아르메니아어, 아랍어까지 능통했다. 꼴론의 목적지가 아메리카가 아니라 인도였기 때문에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당대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루이스 데 토레스의 존재는 각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신대륙에 당도했을 때, 그가 구사하는 언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꼴론의 귀환 후에도 루이스 데 토레스는 에스빠놀라(La Española) 섬에 정착한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유대인으로 남았고, 현재 유대인 역사가들에 의해 신대륙 발견이라는 대업에 이름을 올린 개종 유대인의 리더로 재평가되고 있다(Vilar 1995). 꼴론은 아래 인용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12월 2일자 일기에서 처음으로 이들 통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대장은 스페인 사람 두 명을 보내기로 했다. 한 명은 로드리고 데 헤레스라고, 아야몬페에 살던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루이스 데 토레스라고 무르시아 아델란타도와 살았던 자로, 유대인이었다. 히브리어, 칼데아어, 아랍어를 말할 줄 알았다. 이와 함께 원주민 두 명도 함께 보냈다. 한 명은 대장이 과나아니(Guanahani)에서 직접 데리고 온 원주민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강에 터를 잡고 사는 집에서 데려온 원주민이었다. 대장은 이들에게 그 땅의 왕에 대해 어찌 물어야 할지, 카스티야 국왕 폐하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카스티야 국왕 폐하께서 그 땅의 왕에게 친서와 선물을 전달하고, 그 상태를 알고 우의를 다지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자 대장을 보냈는지, 그리고 대장이 정보를 갖고 있는 특정 지역이나 항구에 대해 아는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지 등에 대해 물어보도록 지령을 내렸다.(Colón 1985, 113-114. Vilar 1995, 252에서 재인용)²⁾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꼴론은 스페인에서 데려온 두 명의 통역사와 함께 도중 사로잡은 원주민을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했다. 통역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는 스페인 국왕부처의 명을 받들어 신대륙 원주민들과 우호

2) 이하 인용문의 강조와 번역은 필자의 것임.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과 필요한 지리 정보를 얻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 스페인 통역사와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는 원주민들이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에 성공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언어적 통역보다는 손짓과 발짓, 즉 수화 통역의 가능성이 더 농후해 보인다. 또한 의사소통 실패 경험이 쌓일수록 끌론은 더욱 역량 있는 통역사의 존재를 희구하였을 것이며, 결국 원주민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야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2) 원주민 통역사

끌론은 첫 항해에서 통역사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에 눈을 떴다. 원주민을 사로잡아 정복자의 언어를 가르치는 방식은 신대륙 발견 후 정복자들이 주로 사용한 방식으로 끌론 외에도 1534년 캐나다의 자크 카르티에(Jacques Cartier)가 2명의 이로쿼이족 원주민을, 1499년 알론소 데 오헤다(Alonso de Ojeda), 후안 델 라 코사(Juan de la Cosa), 아메리코 베스푸치(Américo Vesputcio)는 신대륙 원주민들을 사로잡아 자신만의 통역사 즉 ‘렝구아(혀)’로 길러냈다(Bastin 2003, 197). 원주민의 경우 신대륙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역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까지 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유용했다. 이들은 주로 노예로서 스페인 정복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보다 한 발짝 나아가 끌론은 원주민들을 사로잡아 스페인으로 데려가 통역사로 길러냈다. 주로 원주민 상류층 자제들이었다. 이들을 스페인으로 데려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원정의 전리품으로 왕에게 선물하기 위해, 둘째, 스페인어를 가르쳐 통역사로 육성하기 위해, 셋째, 상류층 원주민들을 개종시켜 신실한 기사로 변모시킨 뒤 다시 신대륙을 데리고 가 다른 원주민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끌론이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12세 가량의 소년 디에고 콜론(Diego Colón)으로, 그의 원주민 이름을 알려져 있지 않다. 끌론은 이 소년과 더불어 원주민 부족의 족장 아들들을 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

라 본국으로 데려갔다. 1493년 바르셀로나(Barcelona)에서 원주민들의 세례식이 거행되었다. 이 때 이 원주민 소년은 꼴론의 아들과 동일한 세례명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곧 꼴론의 아들이 원주민 소년의 대부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당시 스페인인들과 이런 관계를 맺은 원주민들을 과띠아오(guatiao)라고 불렀다(Caballos 2004, 7-8). 꼴론의 전폭적인 신임과 왕실의 후원에 힘입어 디에고 꼴론은 매우 효율적으로 스페인어를 학습하게 된다. 꼴론이 1495년 2월 26일 국왕부처에 올린 서한을 보면 “이제 우리말을 매우 잘 할 수 있습니다(ya sabe hablar muy bien nuestra lengua)” (István Szászdi 1999, 30; Caballos 2004, 10에서 재인용)라고 한 바, 원주민 소년이 대략 3년 만에 스페인어를 능숙하게 할 줄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이 간 원주민들의 대부분이 병사하는 와중에 디에고 꼴론은 꼴론의 2차 원정을 함께한 유일한 과띠아오가 되었다.

에스빠놀라섬에 도착한지 얼마 안 되어, 대장은 그를 과까나가리 족장 앞에 통역으로 활용했다. 그리하여 스페인 사람들의 죽음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이었다. 격렬한 성탄절(fuerte Navidad)에 관한 조사가 일단락되자, 대장은 그를 데리고 주변 섬 정찰에 나섰고, 이때 그는 통역만큼이나 가이드로서 새로이 임무를 수행했다(le sirvió nuevamente tanto de guía como de traductor).(Caballos 2004, 11)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통역사로서 디에고 꼴론의 첫 임무는 섬에 남았던 스페인 사람들의 정확한 사인을 원주민 족장에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기술을 바탕으로 추측하건데, 디에고 꼴론의 통역으로 상호 의사소통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글에서 명시하듯, 디에고 꼴론은 비단 통역사 역할뿐만 아니라 항로를 안내하는 역할까지 담당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꼴론은 이 소년의 미래를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렸다. 디에고 꼴론을 한 부족의 족장 여동생과 결혼시켜 그 부족을 다스리도록 했다. 이후 디에고 꼴론은 산토 도밍고(Santo Domingo)에 아내와 정착하여 자신과 동일한 세례명을 가진 아들을 한 명 두었다. 1514년 이후 족적은 알려진 바 없으나 전염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콜론의 4차례(1492년, 1493년, 1498년, 1502년)에 걸친 탐험은 카리브 해 도서와 연안 지방에 국한되었으나 이후 탐험가들은 드디어 유카탄(Yucatán) 반도를 기점으로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원정대의 탐험가들과 이들의 마야어 원주민 통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유카탄 원정대의 통역사

1511년 스페인에서 파견한 디에고 벨라스게스 데 꾸에야르(Diego Velázquez de Cuéllar)는 쿠바에 제국의 정착지를 건설한 이후 지속적으로 멕시코 원정을 후원한다. 1517년 프란시스코 에르난데스 데 코르도바(Francisco Hernández de Córdoba)의 제 1차 원정대는 쿠바를 떠나 유카탄이라 불리는 땅에 상륙하게 된다. 아래 인용문은 내륙에 상륙하기 전 유카탄 원주민과 조우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열 척의 카누에 탄 원주민들이 우리 선박 주변에 도달하자, 우리는 평화의 신호와 함께 손짓하여 그들을 불렀고, 이야기 하러 오도록 뜻을 조정했다. 왜냐하면 그때 유카탄 말을 아는 통역사(lengua)가 없었기 때문이었다.(Díaz del Castillo 2014, 10)

통역의 부재로 인해 이들은 손짓과 몸짓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통역의 부재에 대한 원정대 해결법은 콜론과 마찬가지로 원주민을 생포하여 통역사로 만드는 것이었다.

1) 1차 원정대의 통역사

아래 인용문은 1차 원정대가 두 명의 마야 원주민을 생포하는 상황에 기술한 것이다.

에르난데스 데 코르도바(Hernández de Córdoba)는 두 명의 사팔이 원주민을 데려왔다. 사람들은 이 두 원주민에게 멜초레호(Melchorejo)와 훌리아니요(Julianillo)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이 두 포로(기독교로 개종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음)를 통역사로 쓰고자 했다. 카리브에서 스페인 사람들은 통역사를 대동할 필요성을 늘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수준 높은 번역사들을 구하는

데 혈안이 되었던 중세 스페인에서 그랬던 것과 같았다. [...] 멜초레호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 어휘는 마야어라 할지라도 매우 한정된 것이었고, 홀리아니요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크게 낙담했다.(코르테스 2009, 124)³⁾

유카탄 반도에서 사용되는 마야어 통역사로 활용된 두 원주민 이름에 축소 접미사가 붙은 것으로 보아 멜초레호와 홀리아니요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멜초레호의 직업을 ‘어부’로 명시하고, 이어 그가 어부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역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한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생면부지 외국인들에게 나포된 상황에서 홀리아니요의 경우 그 어떤 삶의 의욕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다. 이후 홀리아니요는 ‘의기소침한 자(el deprimido)’, ‘우울한 자(el melancólico)’ 등으로 묘사되며,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나온다. 그와는 달리 멜초레호는 도망쳐 원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1518년 후안 데 그리할바(Juan de Grijalva)가 유카탄 반도에서 베라끄루스(Veracruz) 방면을 탐험하고 유럽인으로서 처음으로 아스텍 문명을 접하게 된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통역사로 활약했다.

멜초레호와 홀리아니요의 통역 내용과 관련된 기술은 대부분 원주민들의 우정에 호소하여 탐험대가 원하는 바, 즉 원주민들의 공격을 피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물과 같은 생필품을 얻어내는 것, 그리고 금의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다.

대장은 그들에게 자신은 단지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서 왔으며,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면 대신 자신이 가지고 온 진기한 물건들을 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인디오들은 다음 날 아침 순금으로 만들어진 얼마간의 장신구들을 가지고 왔고 [...].(코르테스 2009, 31-32)

3) Hernández de Córdoba también llevó consigo dos indios bizcos, a los que apodaron *Melchorejo* y *Julianillo*, respectivamente. Pensaba servirse de estos prisioneros (que, al parecer, no se convirtieron al cristianismo) como intérpretes. En el Caribe, los castellanos siempre habían reconocido la necesidad que tenían de intérpretes, como ocurrió en la España medieval que podía lardear de contar con muchos traductores de gran calidad. [...] Melchorejo era pescador y su vocabulario, incluso en maya, era limitado; *Julianillo* sufrió una depresión al encontrarse lejos de su hogar.

위와 같은 통역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시적인 (con la interpretación probablemente primitiva)’ (Hugh 1994, 132) 수준이라 할지라도 당시 원주민들과 스페인 원정대와의 의사소통은 성공을 거두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요구는 손짓과 몸짓, 합성으로 전달이 가능했을 것이고, 물품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대상을 지시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며, 금의 소재는 물물 교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 인용문에서 기록하듯이 이 두 원주민의 통역사로서의 역할은 스페인 원정대와 원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의 중재자 그 이상이었다.

디에고 벨라스게스(Diego Velázquez)는 사팔이 포로 홀리아니요와 멜초레호에게 고향땅에 금광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실은 유까탄 반도에 금광이 없었지만 말이다. 덧붙여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했다. 기독교인도 여럿 있다는 것이다. 유까탄 부족의 장 수중에 여섯 명 정도. 아마 이들은 자신들의 대답에 또 다른 탐험대가 꾸려지면, 자신들이 도망쳐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Hugh 1994, 127)⁴⁾

실제 쿠바 총독에게 원주민 통역사의 입을 통해 들게 된 유까탄 반도에 금광이 있다는 사실과 스페인 포로가 유까탄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차기 탐험대 조직의 대의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결국 원정을 떠났고 스페인 포로를 구출해 내고 이들을 또 다른 통역으로 사용하여, 유까탄에는 없었지만, 금광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부, 바로 아메리카를 거머쥐게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소박한 원주민 통역사들의 대답은 이후 500년에 걸친,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메리카대륙의 식민화와 타자화의 단초가 되었다. 즉, 통역사는

4) Diego Velázquez preguntó a los prisioneros bizcos *Julianillo* y *Melchorejo* si había minas de oro en su tierra. Los indios respondieron que sí, aunque de hecho no las había en el Yucatán. Además le dijeron algo asombroso: que había varios cristianos, tal vez seis, en poder de cierto jefes del Yucatán. Creyeron probablemente que, como consecuencia de sus respuestas, se promovería otra expedición, y que así podrían escaparse y volver a su hogar.

의사소통 현장의 언어적 매개자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2) 2차 원정대의 통역사

스페인 탐험가들이 멕시코 내륙으로 진출함에 따라 원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전개된다. 그 이유는 지역과 종족에 따라 각기 다른 마야 방언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탐험가들은 새로운 지역에 진입할 때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들을 생포하여 통역으로 활용했다. 그 중 한 명이 촌말 마야족(*los mayas chontales*) 원주민 페드로 바르바(*Pedro Barba*)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통역사 홀리아니요와 페드로 바르바, 그리할바 사이의 의사소통에는 이중 통역 전략이 사용되었다.

원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그리할바는 이중 통역을 거쳐야 했다. 홀리아니요와 말을 하면, 이미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던 홀리아니요가 페드로 바르바와 이야기를 한다. 페드로 바르바는 마야어를 하는데 유까판 마야어나 촌말 마야어를 공히 했다.(Hugh 1994, 138)

한편 원주민 통역사들은 새로운 지역을 탐사할 때 선두에서 정찰하는 임무도 수행했다.

다음 날, 배에서 스페인 사람들은 물에서 흰색 깃발 두 개가 펴러이는 것을 보았다. 이에 그리할바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몬테호(*Montejo*)를 40명의 선원 작은 배 한 척에 태워 해안으로 보냈다. 그중에는 궁수와 사수, 그리고 통역사 1명(홀리아니요 혹은 페드로 바르바)이 포함되었다.(Hugh 1994, 139)

원주민 통역사는 스페인 탐험가들에게 단지 언어 전달자가 아니라,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원주민들의 적대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외교관의 역할도 담당했을 것이다. 의사소통이 불발되더라도 원주민들과 적어도 외모 상으로는 스페인 인물보다 동질성이 더 큰 원주민 통역사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대편 원주민들의 적개심을 완화시켜 유혈 사태를 막고자 했을 것이다. 따라서 40명의 스페인 군인들보다도 1명의 원주민 통역사가 안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존재였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처럼 남성 원주민 통역사의 경우 언어 중재뿐만 아니라 원주민과의 접촉을 원활하게 하고, 있을지 모르는 소요 사태를 미연에 언어적, 인종적 동일성으로 방지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것을 알 수 있다.

III. 정복기 통역사

멕시코 정복은 에르난 코르테스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 두 명의 통역사를 대동하고 항해를 시작한 콜론보다 미지의 대륙을 정복하겠다는 야심이 코르테스의 계획은 통역 면에 있어서 좀 더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우선 자신보다 앞서 신대륙에 도착한 탐험가들의 원주민 통역사의 한계를 경험한 코르테스는 난파선 생존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원주민들과 생활한다는 원주민 통역사의 정보에 귀를 기울여 누구보다도 공을 들여 이들 중 한 명을 구출해 냈다. 원주민 손아귀에 잡힌 포로를 구한다는 대의명분보다는 포로 생활 중 그가 체득했을 원주민들의 언어와 삶에 대한 정보의 가치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프란시스코 데 아길라르(Francisco de Aguilar) 수사를 구출하여 통역으로 활용함으로써 언어 문제와 종교의 문제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게 되었고, 운명이 그에게로 이끈 말린체라는 원주민 여성 통역사는 그가 멕시코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1. 원주민 통역사

1519년 쿠바 총독이 3차 원정 계획에 차질을 빚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자체적으로 원정대를 꾸려 신대륙 개척 길에 오른다. 다른 탐험가들과는 달리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 정복이라는 인류사에 길이 남을 대업을 이루게 된 배경에는 그에게 협조한 다양한 통역사들의 기여가 자리한다. 그를 탐험 과정에서 얻게 된 다양한 통역 경험 통해 통역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혔고, 그 과정에서 통역사들은 그가 원하는 언어 중재자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 첫 단계는 여타 탐험가와 다를 바 없이 원주민 통역사가 존재한다. 멜초레호와 홀리아니요는 코르테스의 정복길에도 동행했다. 홀리아니요는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결국 멜초레호도 정복의 완성을 함께한 것은 아니다. 기회를 틈타 도망쳤던 것이다.

통역인 멜초레호는 자신의 스페인 옷가지를 나무에 걸어두고 도망쳤다. 코르테스는 멜초레호의 탈주에 동요했다. 그는 원주민들에게 스페인 군대의 수가 적다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월한 존재로서 자신들에 대해 품었을 환상을 깰 수도 있는 인물이었다.(Prescott 1972, 154)⁵⁾

위의 인용문은 원주민 통역사 탈주에 대한 코르테스의 동요를 기술하고 있다. 정복자로서 코르테스에게 멜초레호의 존재는 통역사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킨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세계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존재가 자신과 잠재적인 적을 매개하던 통역사일 경우 그 불신은 증폭된다. 원주민 통역사는 탐험가들에게는 양날의 검과도 같았다. 언어 중재자로서의 중요성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가 없었으나 그들이 자신에 반하는 원주민 세력과 결탁할 경우에는 스페인인들의 실상 폭로하고 군사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을 파멸로 몰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몇 백 명의 군대로 십만 명이 넘는 하나의 아스텍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경계할 부분이기도 했을 것이다. 실제로 현대 통역학 연구에서 중간자(in-betweens)로서 통역사의 윤리는 핵심주제이기도 하다(Pym 2012). 통역사가 어느 편에서 서느냐는 의사소통의 성공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목적 달성의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코르테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 바로 멜초레호의 도주였다. 한편 나무 위에 스페인 복장을 벗어놓고 떠났다는 대목의 상징성을 고려해볼 때 멜초레호가 스페인에 반하는 행동을 취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5) [...] the interpreter, *Melchorejo*, had fled, leaving his Spanish dress hanging on a tree. *Cortés* was disquieted by the desertion of this man, who would not only inform his countrymen of the small number of the Spaniard, but dissipate any illusions that might be entertained of their superior natures.

짐작은 사실로 나타났다.

스페인 사람들이 잃은 것은 그들의 오래된 통역 멜초레호 뿐이었다. 그는 상황을 틈타 도망갈 기회로 삼았다. 그가 유까탄에 있는 고향 사람들과 다시 만나 어부로 돌아갔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건 멜초레호가 마야인들에게 스페인 사람들을 주야로 공격해야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들이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 죽음의 고통을 앓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길라르는 이 사실을 멜초레호가 탈주 전날 밤을 함께 보낸 두 명의 포로를 심문할 때 알게 되었다. (Hugh 1994, 203)⁶⁾

자신의 ‘오래된(antiguo)’ 통역사 멜초레호가 도망가는 길에 만난 마야 원주민들에게 스페인 군대의 위협을 알리고 그들을 반드시 칠 것을 당부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코르테스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더욱이 우려했던 것처럼 멜초레호는 스페인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같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임을 강조하여 원주민들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가졌던 환상을 깨는데 일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아마도 이때부터 코르테스는 더욱 더 통역사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자신의 ‘혀’처럼 한 몸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통역사의 출현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한편 신뢰라는 문제 외에도 통역의 효율성과 통역사의 지적 수준이라는 문제도 코르테스의 고려사항이었을 것이다. 코르테스의 원정대에는 나우아어를 구사하는 소년 프란시스끼요(Francisquillo)도 등장한다. 나우아어 사용 지역으로 탐험 영역이 확대 되는 가운데 다른 원주민 통역사에 비해 나이도 어리고, 스페인어도 미숙하여 통역 경험이 적은 프란시스끼요의 존재는 코르테스에게 새로운 걱정거리를 던져 주었을 것이다. 나이가 많을 경우 멜초레호의 경험에 서처럼 도망쳐 배신할 수 있고 스페인어 습득 기간이나 협조 면에서 불리한 점

6) Lo único que perdieron los castellanos fue su antiguo intérprete, *Melchorejo*, que aprovechó la oportunidad para huir. No se sabe si logró reunirse con su pueblo en el Yucatán y volver a ser pescador. Pero sí se sabe que dijo a los mayas que debían atacar a los castellanos día y noche, puesto que éstos, como todos los hombres, sufrían el dolor de la muerte. Aguilar se enteró de ello al día siguiente cuando interrogó a dos prisioneros con los que *Melchorejo* había pasado la noche anterior.

이 있는 반면, 프란시스코처럼 너무 어릴 경우 스페인어를 빨리 배우고 이방인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적개심이 덜하다 하더라도 인간사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통역사로 기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코르테스의 정복의 대의가 신앙의 전파라는 점에서 기독교 신앙 자체를 이해할 여력이 없는 원주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복 대의를 원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스텍 제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에도 견식이 있는 새로운 통역사의 존재를 희구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8년간의 포로 생활로 마야 원주민들의 언어와 생활, 문화를 체득한 헤로니모 데 아길라르 수사의 구출과 나우아어와 마야어에 능통한 원주민 족장의 딸 마리나의 출현은 코르테스에게 아스텍 제국의 정복을 가능하게 해준 절호의 기회였다.

2. 스페인 출신 통역사: 헤로니모 데 아길라르 수사

헤로니모 데 아길라르 수사는 1489년 스페인 세비야의 에시하(Ecija)에서 태어나 1511년 후안 데 발디비아(Juan de Valdivia) 원정대를 따라 항해하던 중 배가 난파되어 원주민들의 포로가 되었다. 한편 같이 난파되어 원주민 손에 포로로 잡힌 아길라르 곤살로 게레로(Gonzalo Guerrero)의 경우 원주민 아내를 맞이하여 세 딸을 낳고⁷⁾ 원주민처럼 코와 귀를 뚫고 문신을 한 채 원주민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의 소식이 원주민 통역사들을 통해 코르테스에게 들어가자 그는 전력을 다해 이들을 구출하고자 애썼다. 코르테스와 합류한 아길라르 수사와는 달리 게레로는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다.

코르테스가 이들을 데려오고자 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포로 생활 중에 이들이 습득한 마야 방언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당시 촌말족의 마야어를 사용할 수 있는 통역사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스페인어가 부족한 원주민 통역사였기 때문에 아길라르 수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갔다. 이와 덧붙여 아래 인용

7) 이 때는 말린체가 코르테스의 아들을 낳기도 전이었다. 즉, 이들의 존재는 최초의 '혼혈의 어머니'로서 말린체 신화의 오류를 증명하는 것이다.

문에는 아길라르 수사의 또 다른 중요성을 기록되어 있다.

코르테스는 즉각적으로 촌딸 마야어를 하는 이 아길라르가 필요로 했던 통역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스페인어 연습이 필요했으나 이는 8년간의 고립 후였기에 예상 가능한 바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스페인어를 완벽히 구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아길라르는 너무나도 유용했다. 마야인들의 인신 공양에 대해 설명 때문에 정복자들은 다소 위축되기도 했으나 동시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기독교적 사명이라는 생각은 더욱 강해졌다.(Hugh 1994, 199)

언어 매개 능력과 더불어 아길라르 수사는 포로 생활 중에 그가 익힌 원주민의 풍습을 스페인 정복자에게 설명해줄 수 있는 문화 중재 능력까지 갖춘 것이었다. 또한 수사로서 그의 소임인 기독교 전파는 정복을 후원하는 국왕부처와 교황에게 약속한 코르테스의 대의명분이기도 했다. 따라서 아길라르 수사의 구출은 코르테스 정복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저들에게 자신들의 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말해줄,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성격을 잘 설명해줄 통역사만 있다면 원주민들 대부분은, 아니 그들 모두는 머지않아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우리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코르테스 2009, 65)

따라서 종교 전파자로서의 그의 역할은 언어 중재자로서의 중요성을 능가할 정도였다. 쿠바 총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정길에 나선 코르테스로서는 그를 후원하는 국왕부처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고, 위의 서한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원정이 경제적인 욕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명임을 강조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아길라르 수사였다.

한편 문화의 전달자, 종교의 전파자 역할 외에도 문헌에는 통역사 아길라르 수사의 또 다른 역할도 기록되어 있다. 바로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통역사의 역할이다.

- 마리나와 코르테스에 대해서는 헤로니모 데 아길라르의 증언 참조: “그 때 르난도 코르테스는 령구아마리나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 아들을 한 명 두

- 었다.”
- 통역인 헤로니모 아길라르는 코르테스가 원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길에 피네도를 데려가 설득하지 못할 시에는 죽이라고 명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 헤로니모 데 아길라르는 딸이라고 말했다. “코르테스는 목떼수마의 딸 두명과 함께 갔다. 프란시스코 바르가스는 다른 증인들처럼 코르테스의 침실에서 도나 아나를 보았다고 증언했다.(Hugh 1994, 358, 406, 758)⁸⁾

이처럼 코르테스가 그의 원주민 통역사 말린체와 육체관계를 맺어 아들을 두었다는 사실이나, 코르테스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사실, 아스텍 제국의 황제 목떼수마의 딸을 방으로 들였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실들을 가장 곁에서 그와 동행한 통역사 아길라르는 증언하고 있다. 실제 인디오를 통한 피네도 살인 교사의 경우 그가 직접 통역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증언이었을 것이기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 통번역학에서는 중간자로서의 통역사의 중립성과 윤리를 중요시하여,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가하도록 할 정도이지만, 사료가 불충분한 시대의 사건에 대해 역사적 증거로서의 통역사의 증언과 기억의 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원주민 여성 통역사: 말린체

아스텍 제국을 정복한 코르테스의 제국의 동반자는 마리나(Marina), 도나 마리나(Doña Marina), 말린체(Malinche), 말린친(Malintzin)이라고 불리우던 원주민 소녀 말리날리 페네빨(Malinali Tenepal)이었다. 멕시코 정복의 역사에서나 통역의 역사에서나 이 인디오 여성만큼 입체적으로 논의된 여성은

-
- 8) • Para Marina y Cortés, véase la declaración de Gerónimo de Aguilar contra Cortés: «el dicho Fernando Cortés se echó carnalemtne con Marina la lengua e huvo en ella un hijo...».
- Mas Gerónimo Aguilar, el intérprete, declaró haber oído a Cortés ordenar a unos indios llevar a Piñedo de regreso y de no poder convencerle, matarle.
 - Gerónimo de Aguilar dijo que era una hija; «Cortés fue con dos hermanas, hijas de Moctezuma.» Francisco Vargas dijo como los otros testigos, que vio a doña Ana en la habitación de Cortés en palacio.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베르날 디아스 데 까스티요(Bernal Díaz del Castillo 2014)가 36장과 37장(98-103)을 할애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 인디오 여성의 출신과 코르테스와의 만남은 그리스 대서사시의 영웅에 비견될 정도이다. 말린체는 나우아어 사용지역인 꼬앗차꼬알코스(Coatzacoalcos)의 빠이날라(Painala) 마을의 족장의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의 개가하여 배다른 남동생을 낳으면서,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어머니 손에 마야어 사용 지역인 따바스꼬(Tabasco)지역의 뽀뽀찬(Potonchan)으로 노예로 팔려간다. 이후 따바스꼬 지역의 족장들에 의해 원주민 여성 20명과 함께 코르테스에게 공납된다. 그리하여 말린체는 여성으로서도 아메리카 대륙 최초로 기독교 세례를 받고 마리나라는 기독교식 이름을 얻게 된다. 사실 말린체라는 이름은 ‘마리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말린친을 스페인 사람이 말린체로 잘못 발음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베르날 디아스 데 카스티요의 저서에서 최초로 언급될 때는 도냐 마리나라는 존칭과 함께 사용되었다. 즉, 당시 정복자들 사이에서 이 여성은 존경과 찬탄의 대상이었던 것이다(Díaz del Castillo 2014, 87).

도냐 마리나는 멕시코 과사팔꼬(Guazacualco) 말을 알았고 따바스꼬 말을 알았다. 헤로니모 아길라르처럼 유까판과 따바스꼬 말을 알았다. 이 둘은 서로 잘 이해했다. 그리고 아길라라는 스페인어로 코르테스에게 말했다. 이것이 우리의 정복에 위대한 시작이었으며, 찬양 받으실 주님, 이처럼 모든 일이 융성하게 이루어졌다. 도냐마리아가 가지 않고는 누에바 에스빠냐와 멕시코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Díaz del Castillo 2014, 103)

위의 인용문에는 말린체의 통역 방식이 기술되어 있다. 멕시코의 언어, 즉 나우아어와 따바스꼬의 언어에 능통한 말린체와 유까판과 따바스꼬에서 사용되는 마야어를 알고 있던 아길라르 수사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아길라르 수사가 그 내용을 코르테스에게 통역하는 이중 통역 방식을 사용한 것이었다. 역사가는 이를 ‘위대한 정복의 시초’라고 극찬하고 있다. 두 명의 통역을 통해 이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특히 말린체의 존재는 신대륙 언어

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했다. 원주민 통역사와 달리 말린체가 이렇듯 핵심적인 인물이 된 이유는 그녀가 가진 지적 능력이었다. 언어적 재능도 재능이지만 족장의 딸이라는 고귀한 태생으로 인해 가능했을 높은 교육을 통해 말린체는 원주민 세계에 대한 지식과 명확한 상황 판단으로 코르테스의 제국 건설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로 발돋움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언어 수준뿐만 아니라 통역 내용도 달랐다. 이전 원주민 통역사들이 주로 일상 대화를 주로 통역했다면, 말린체는 아길라르 수사와 함께 원주민들과의 전쟁에 앞서 반드시 거행해야 하는 통첩문(Requerimiento) 낭독을 통역(Hugh 1994, 280)했고, 설교(homilia)를 통역하기도 했으며(Hugh 1994, 542), 아스텍 제국의 황제 목떼수마와 코르테스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들의 연설을 통역하기도 했다.

마리나와 아길라르 덕분에 코르테스는 늘 하던 기독교의 유용성에 관해 보다 세련되게 연설했다. [중략] 목떼수마 황제는 통역이 된 이토록 특별한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아길라르와 마리나가 통역 중 변한 실수가 무엇인지, 이들이 첨가하거나 과한 낱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Hugh 1994, 336)

만일 당시 코르테스의 연설문과 말린체의 통역 내용을 보관한 사료가 있었을 경우 당시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종교에 있어서 아길라르 수사는 코르테스보다도 더 정교하게 통역했을 것이고, 이미 가톨릭으로 개종한 마리나는 종교적 이해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통역 경험으로 인해 다른 통역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품질의 통역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말린체가 결정적으로 언어 중재자 이상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스텍 제국의 황제와 코르테스의 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술한 아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벨라스게스 데 레온(Velázquez de León)은 목떼수마 황제에게 그들과 함께 갈 것인지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했다. 목떼수마 황

제는 마리나에게 벨라스케스가 무어라 말하는지 물었고 마리나는 황제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스페인 사람들을 따를 것을 **충고**했다. 그리한다면 그에 걸맞게 예우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분명히 황제를 시해할 것이라 했다.(Hugh 1994, 348)⁹⁾

일개 노예에 불과한 말린체가 스페인 사람의 말을 통역할 뿐만 아니라 제국의 황제 모테수마에게 스페인 사람들에게 협조할 것은 ‘충고’를 한다는 이 대목은 매우 극적이다. 말린체가 이 자리에서 보여준 황제의 조연자이자 정복자의 외교관 역할은 전 세계 통역사를 통틀어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린체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후대 학자들의 비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그녀가 담당했던 첩자로서의 역할 때문이었다. 그녀는 원주민 부인이 호의를 베풀고자 알려준 출롤라(Cholula) 원주민들의 매복 계획을 코르테스에게 밀고했고, 이는 곧 출롤라 원주민 ‘학살’로 이어졌다. 그러나 반대로 코르테스는 이러한 말린체의 절대적인 협력을 높이 평가하여 출롤라 ‘전투’의 승리를 왕에게 전하는 서한에서까지 그녀의 공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런데 폐하, 저는 당시 제가 첫 번째 편지에서 폐하께 말씀드린 큰 강, 푸툽찬 지역 출신의 한 인디오 여성을 저의 통역으로 두고 있었는데, 후에 들은 얘기에 그녀가 이곳의 다른 한 인디오 여성으로부터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모테수마의 군대가 집결해있으며, 이 도시 사람들이 처자식과 가재도구들을 시외곽으로 옮기고 있고, 그 일이 끝나면 곧 우리를 기습하여 몰살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일 살고 싶으면 자기와 같이 빠져나가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얘기를 제가 유까탄에서 합류시킨 통역사이며, 그에 대해서는 앞서 보내드린 편지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헤로니모 데 아길라르에게 전했고, 그 아길라르는 다시 저에게 그 정보를 전했습니다. 이에 제가 지나가던 이 도시 원주민들 가운데 한 명을 붙잡아 은밀히 한 쪽으로 데리고 가 추궁하자 그는 앞에서 말한 인디오 여자가 했다는 말을 그리고 따스갈떼까 사람들이 제

9) *Velázquez de León* exigió a *Moctezuma* escoger entre ir con ellos o ser muerto al instante; *Moctezuma* preguntó a *Marina* lo que había dicho *Velázquez* y ella le aconsejó acompañar a los castellanos a su alojamiento sin causar problemas; lo tratarían con el debido respecto; pero si no lo hacía, estaba segura de que lo matarían.

게 했던 말을 확인해주었습니다.(코르테스 2009, 123)

이 대목에서 말린체는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가 된다. 말린체를 비난하는 입 장에서는 말린체를 신화 수준으로 자주 언급하지만, 정작 말린체의 절대적인 협력으로 멕시코 정복이라는 과업을 완수한 코르테스는 서신에서 그녀의 이름을 고작 한 번 언급할 따름이었다. 즉, 말린체의 협력의 공은 높이 사지만,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에에는 부차적인 통역사이고, 남성에 비해 열등한 여성이며, 유럽인에 비해 미개한 원주민일 따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언급이라 할지라도 코르테스가 적고 있듯이 “마리나는 다른 20여명의 여성 과 함께 내가 한 인디오 수장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후 지금까지 내내 나와 행 동을 함께한”(코르테스 1996, 2권 167) 존재로, 코르테스가 건설한 식민 제국 의 동반자이자 통역사로 역사의 모든 현장을 함께했으며, 일상생활에서부터 군사, 종교, 정치, 문화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에서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제 국의 위업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정복의 일등 공신임은 분명했다.

IV. 신대륙 정복기 통역사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목표는 역사 기술의 관점에서 신대륙 발견과 아스텍 제국 정복 과 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통역사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역할을 재조명하 는 것이었다. ‘역사 기술의 관점’과 ‘재조명’에 방점을 찍는 이유는 이들 통역사 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부족하거나 있다하여도 다분히 신화적이고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역사학자들은 황제나 정복자 같은 역사상 중요 인물에 비해 그 지위가 현격히 떨어지는 통역사라는 존재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대로 신대륙 발견과 아스텍 제국 정복이라는 인 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통역사의 존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벨 라스케스 총독이 원주민 통역사들로부터 유까탄 반도 내의 금광의 존재를 듣 지 못했더라면 유까탄 반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원정대를 파견했었을 지도 모

른다. 코르테스가 원주민 통역사에게 아길라르 수사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더라면, 아스텍 제국 출신 말린체를 통역사로 발탁하지 않았더라면 아스텍 문명은 정복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신대륙 탐험과 아스텍 정복 역사의 순간마다 통역사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다른 모습으로 쓰였을 것이다. 비단 이 시기 이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다. 페루와 파라과이 지역의 잉카 정복 과정에서 잉카어의 정복은 프란시스코 피사로(Francisco Pizarro)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우드 2005, 177)을 했고, 미국 플로리다 탐험가 에르난도 데 소토(Hernando de Soto)는 탐험 과정에서 통역사 후안 오르티스(Juan Ortíz)가 사망하자 미서부 탐험 계획 자체를 포기했다(Roland 1999). 이 정도로 아메리카 정복 과정에서 통역사의 역할은 핵심적인 것이었다. 이 시기 통역사들은 언어 능력을 지닌 정복자의 ‘노예’에서 정복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정복의 ‘동반자’로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킨 것이다. 멜초레호 역시 탐험대에서 탈주하여 원주민들에게 스페인 탐험대의 실체를 고발하여 정복자 코르테스가 깊은 우려를 표할 정도의 세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듯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통역사들의 활약은 말린체라는 신화에 눌러 빛을 보지 못했다.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 없이 역사가들이 저마다 다른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만들어 놓은 통역사에 대한 신화를 현실로 인식해 온 경향이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이라는 여과지의 위력으로 멜초레호는 나라를 지킨 남성 이미지로, 말린체는 나라를 판 여성 이미지로 갈리게 된다. 스페인 편에선 아길라르 수사는 정복의 수훈장으로 에스빠냐를 위해 충성을 다한 기회주의적이고 무력한 인물로 인식되는 반면, 원주민 편에선 곤살로 게레로는 이후 에스빠냐 군대에 대항하여 싸웠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영웅으로 취급받고 있다(송영복 2000, 11).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본 코르테스의 보고서에서 아길라르 수사는 종교적 신념으로 여러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의 언어적 재능을 바탕으로 이교도 원주민들을 교화하고, 역사적 현장에 존재하여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는 인물이며, 게레

로는 “수치스럽게도(cosa que lo avergonzaba)”(Hugh 1994, 199)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문명의 세계에서 미개의 세계로 퇴보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 어떤 해석도 정답일 수 없으나, 해석의 시기와 관점에 따라 동일한 역사적인 인물이 그 역사적 실제 역할에 대한 깊은 탐구 없이 신화화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때 역사적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게레로가 말린체보다 먼저 첫 번째 혼혈의 역사를 이룬 실존 인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린체는 우리의 인식 속에 아메리카 대륙의 ‘혼혈의 어머니’로 존재한다. 말린체가 아들을 낳아 역사에 기록될 정도의 공을 쌓은 인물로 키워냈음에도 불구하고 말린체는 문란한 사랑에 빠져 제 자식을 죽이고 슬퍼하는 ‘우는 여자(la Llorona)’ 전설과 결합하여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성적의 이미지로 무한히 재생산 되었다. 실제로 ‘말린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요염한 나신의 젊은 여성의 이미지가 아스텍 제국의 황제보다도 더 큰 존재로 그려진 고문서(Códex)보다도 더 많이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라틴아메리카의 대문호 옥파비오 빠스(Octavio Paz)에 의해 문학적으로 생성된 겁탈당한 부끄러운 우리의 어머니 말린체, ‘라 칭가다’에 대한 멕시코인의 콤플렉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남성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의 산물임에도 신화가 역사적 사실을 능가하는 힘을 지녔다. 최근 들어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운명을 개척한 긍정적인 인물로서 말린체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말린치스모’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한 말린체는 영원히 ‘외국의 것에 호감을 보이는’ 모욕적인 인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대기나 역사서들도 작성한 사람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이기에 전적으로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꼴론이 일지에서 적은 것처럼 신대륙에 당도하자마자 원주민들과 즉시 대화를 나누며 우정을 나누었고, 이들이 설명한 종교 교리에 원주민들이 크게 감동하여 개종을 약속하고 스페인 국왕부처에 대한 복종을 다짐했다는 내용은 허구임이 분명하다. 디에고 꼴론에 대한 꼴론의 부성애적 후원 역

시 디에고 꼴론의 입장에서 보면 금과 향신료를 찾아줄 도구를 관리하는 일종의 율가미인지도 모른다(Ríos 2005 참조).

본 연구가 역사 기술의 관점에서 통역사들의 흔적을 추적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역사적인 중요성에 비해 우리의 관심 밖에 있던 통역사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연대기에 존재하는 통역사, 통역 상황, 통역 방식, 통역 평가 등에 대한 기록을 발굴하고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하였다. 둘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로 인해 신화화 된 통역사 이미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무의식중에 재생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역사와 신화는 어느 지점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항상 역사가 옳지도 신화가 그르지도 않다. 단지 어떤 방식으로 역사적 인물이 신화적 존재가 되는지를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시각에서 되짚어 따져 물어, 그 결과가 현재 우리의 역사관과 세계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앞으로 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통역사는 중간자로서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도 있고 양가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특이성을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역사 속에 통역사를 역사 속에서 복원하여 두 세계의 접점에서 그가 담당한 여러 역할을 규명하고, 그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 필터를 벗겨내어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하는 작업은 해당 통역사가 활동한 시대를 다면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의 첫 단추가 되고, 나아가 현재를 살아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V. 나오며

본 연구에서는 신대륙 탐험 시기와 아스텍 제국 정복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 별로 활약한 통역사들을 소개하고, 연대기에 나타난 이들의 통역 양상을 기술하고, 역할을 분석하여 통역사 연구가 갖는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신대륙 탐험 시기 통역사들은 탐험가와 원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의사소통 중재자로 활약했고, 나아가 지형 지식을 바탕으로 신대륙 탐험로를 확장하는데 기여한 안

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당시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스페인의 언어, 종교, 정치, 사회, 문화를 현지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신문물의 전파자로서도 기능했다. 정복 시기로 접어들면서 통역사는 탐험 시기 통역사들이 담당할 역할 외에 효율적인 정복을 위한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상대편의 군사 기밀을 입수하는 정보원의 역할, 정복자와 피정복자들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외교관의 역할, 정복자와 피정복자간 상호 문화 이해를 돕는 문화 전달자의 역할, 종교를 전파하는 선교사의 역할, 양 진영의 의사 결정자들의 결정시 판단 근거를 제공해주는 조언자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한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통역사들이 이렇듯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의 ‘동반자’로서 통역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이데올로기 편향적 평가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으로 연대기에 기록된 통역사의 활동과 역할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으나, 분석 대상인 연대기 역시 그 자체로 역사라기보다는 문학 기록의 성격도 지니는 바, 기록하는 자의 세계관과 역사관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그 기록이 모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역사 속 존재이나 ‘통역사’라는 직업군에 대한 관심보다는 양 진영의 중간자에 선 ‘배신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들의 통역사로서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두 세계의 만남에서 이들의 ‘역할’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새로이 환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식(2008), 「아메리카 ‘정복’ 과정 속의 (불)소통과 단절」,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Vol. 23, No. 3, pp. 81-111.
- _____ (2012), 「치카나들의 세 어머니와 산드라 시스테로스: 『우먼 홀러링 크릭과 다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3, No.

- 2, pp. 203-235.
- 김윤경(2010), 「코르테스의 통역사, 말린체: ‘민족의 반역자’인가 ‘건국의 어머니’인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1, No. 2, pp. 57-82.
- 마이클 우드(2005), 『태양의 제국, 잉카의 마지막 운명』, 장석봉·이민아 옮김, 랜덤하우스 중앙
- 박종욱(2009), 「신대륙, 서구적 욕망의 그림자: 영상물에 투영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비교문학연구*, Vol. 13, No. 1, pp. 41-73.
- 송영복(2000), 「중남미 국가들의 정체성에 나타나는 아메리카 고대문명의 의미와 왜곡」, *중남미 연구*, Vol. 19, No. 1, pp. 3-16.
- 에르난 코르테스 지음, 양헬 고메스 엮음(2009), 『코르테스의 멕시코제국 정복기 1, 2』, 김원중 옮김, 나남.
- 조구호(2008), 「라우라 에스끼벨의 소설 『말린체』의 복합적 이미지」, *세계문학비교연구*, Vol. 23, pp. 337-361.
- Bastin, Georges(2003), “Por una historia de la traducción en Hispanoamérica”, *Icala*, Vol. 8, No. 14, pp. 193-217.
- Caballos, Esteban(2004) “Caciques guatiaos en los inicios de la colonización: El caso del indio Diego Colón”, *Iberoamericana*, No. 16, pp. 7-16.
- Delisle, Jean & Woodsworth, Judith(1995), *Translators through History*,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 Díaz del Castillo, Bernal(2014), *Historia verdadera de la conquista de la Nueva España. Tomo I*, 1795. <http://www.saavedrafajardo.org/Archivos/diazhistoria.pdf>.
- Hugh, Thomas(1994), *La Conquista de México*, Víctor Alba(trans.), Barcelona: Editorial Planeta.
- Paz, Octavio(1950), *El laberinto de la soledad*. <http://www.hacer.org/pdf/Paz00.pdf>.
- Prescott, William(1972), *The Conquest of Mexico. The Conquest of Peru*, New York: The Modern Library.
- Pym, Anthony(2012), *On Translator Ethic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B.V.
- Quilis, Antonio(1989),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 Antonio de Nebrija*, Madrid: Editorial Centro de Estudios Ramón Areces.
- Ríos, Victoria(2005), “Fictionalising interpreters: traitors, lovers and liars in the conquest of America”, *Linguistica Antverpiensia*, No. 4, pp. 47-60.
- Roland, Ruth(1999), *Interpreters as Diplomats: A Diplomatic History of the Role of*

- Interpreters in World Politics*,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 Saint-Lu, André(1992), *Brevísima Relación de la Destrucción de las Indias*, Madrid: Cátedra.
- Valdeón, Roberto(2013) “Doña Marina/La Malinche: A Historiographical Approach to the Interpreter/Traitor”, *Target*, Vol.25, No.2, pp.157-179.
- Vilar, Juan(2004), “Nuevos datos para una biografía del judío converso Luis de Torres, intérprete oficial en la primera expedición colombiana”, *Miscelánea de Estudios Arabes y Hebraicos*, Vol.44, No.1, pp.247-261.

박 소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huifpsy@huif.ac.kr

논문투고일: 2014년 11월 16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5일

